

N E W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홀로 공부하는 수능

홀수 국어



국어북

언어와
매체

기출



훈련도구



도서출판 홀수
Holsoo Publishers

출수 국어 기출 훈련도구 국어북

전 영역 구성 살펴보기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구성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2022학년도 예시문항 화법과 작문 분석
PART 2	문제 풀이를 위한 핵심 개념 학습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법 핵심 개념 작문 핵심 개념
PART 3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훈련 2021학년도 수능
PART 4	5개년 평가원 기출 분석 훈련 2021학년도 9월 모평 ~ 2017학년도 6월 모평
PART 5	개정 수능 형식 모의고사 훈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 SET 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 SET 2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 SET 3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구성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2022학년도 예시문항 언어와 매체 분석
PART 2	문제 풀이를 위한 핵심 개념 학습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핵심 개념 매체 핵심 개념
PART 3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훈련 2021학년도 수능
PART 4	7개년 언어(문법) 평가원 기출 분석 훈련 + 매체 제작 문제 분석 2021학년도 9월 모평 ~ 2015학년도 6월 모평 + 매체 1 ~ 7
PART 5	개정 수능 형식 모의고사 훈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 SET 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 SET 2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 SET 3

[공통과목] 1-9권

영역	권	구성
문학	1권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PART 2 이상적인 지문 독해를 위한 훈련
		PART 3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훈련
	2권	[현대시]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3권	[현대산문]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4권	[고전시가]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5권	[고전산문]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독서	6권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PART 2 이상적인 지문 독해를 위한 훈련
		PART 3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훈련
	7권	[인문·예술]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8권	[사회·문화]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9권	[과학·기술]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언어와 매체 CONTENTS & PLAN

DAY	PAGE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학습 CHECK		
			1회	2회	3회
DAY 1	P. 14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2	P. 19	2 2022학년도 예시문항 언어와 매체 분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PAGE	PART 2. 문제 풀이를 위한 핵심 개념 학습	학습 CHECK		
			1회	2회	3회
DAY 3	P. 44	1 언어 핵심 개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60	2 매체 핵심 개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PAGE	PART 3.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훈련	학습 CHECK		
			1회	2회	3회
DAY 4	P. 68	2021학년도 수능 언어(문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PAGE		PART 4. 7개년 언어(문법) 평가원 기출 분석 훈련 + 매체 제작 문제 분석	학습 CHECK		
	문제	해설		1회	2회	3회
DAY 5	P. 84	P. 4	1 2021학년도 9월 모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86	P. 8	2 2021학년도 6월 모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88	P. 12	3 매체 제작 문제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6	P. 90	P. 15	4 2020학년도 수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93	P. 21	5 2020학년도 9월 모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95	P. 27	6 2020학년도 6월 모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7	P. 97	P. 32	7 매체 제작 문제 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99	P. 35	8 2019학년도 수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01	P. 40	9 2019학년도 9월 모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8	P. 104	P. 45	10 2019학년도 6월 모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06	P. 50	11 매체 제작 문제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08	P. 53	12 2018학년도 수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9	P. 111	P. 59	13 2018학년도 9월 모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13	P. 63	14 2018학년도 6월 모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15	P. 67	15 매체 제작 문제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10	P. 117	P. 70	16 2017학년도 수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19	P. 75	17 2017학년도 9월 모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22	P. 78	18 2017학년도 6월 모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11	P. 124	P. 83	19 매체 제작 문제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26	P. 86	20 2016학년도 수능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28	P. 90	21 2016학년도 수능B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30	P. 92	22 2016학년도 9월 모평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32	P. 95	23 2016학년도 9월 모평B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12	P. 134	P. 98	24 2016학년도 6월 모평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37	P. 101	25 2016학년도 6월 모평B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39	P. 103	26 매체 제작 문제 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41	P. 106	27 2015학년도 수능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43	P. 109	28 2015학년도 수능B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45	P. 112	29 2015학년도 9월 모평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47	P. 115	30 2015학년도 9월 모평B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49	P. 118	31 2015학년도 6월 모평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13	P. 151	P. 122	32 2015학년도 6월 모평B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153	P. 124	33 매체 제작 문제 7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PAGE		PART 5. 개정 수능 형식 모의고사 훈련	학습 CHECK		
	문제	해설		1회	2회	3회
DAY 12	P. 158	P. 130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 SET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13	P. 162	P. 133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 SET 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14	P. 166	P. 136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 SET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AY 15	복습하기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시험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출제되고, 공통과목+선택과목의 구조로 구성돼. 선택과목 중 하나인 언어와 매체의 언어 영역에서는 ① 음운의 체계와 변동, ② 품사와 단어의 특성, ③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과정, ④ 단어의 의미 관계, ⑤ 문장의 짜임, ⑥ 문법 요소, ⑦ 담화, ⑧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국어사), ⑨ 국어 규범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여기에 +Q로
- 2022학년도 예시문항은 '실제 국어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언어 사용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를 '탐구'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지.
- 언어(문법) 영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2022학년도 예시문항과 기존의 평가원 기출 문제의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자!

유형	최근의 평가원 기출 언어(문법)	유형	2022학년도 개정 수능 언어 (예시문항 기준)
구성	국어 영역에서 11~15번에 배치, 지문형 2문항 + 단독형 3문항 = 5문항	구성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의 11문항 중 35~39번에 배치, 5문항 (* 매체 영역의 1문항은 언어의 성격을 지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문으로 제시된 문법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나 자료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판별하는 유형 ② 자료의 구체적 사례를 보고 문법적 설명의 적절성을 판별하는 유형 ③ 문법적 설명을 보고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거나 분류하는 유형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 유형은 이전 기출의 ①, ②, ③과 유사한 형식으로 제시되나,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탐구형 문제 형식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참고: 2022학년도 예시문항 37번, 38번)

매체는 새롭게 신설된 영역이므로, 2022학년도 예시문항을 기준으로 눈여겨볼 만한 매체 문제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어.

유형	2022학년도 개정 수능 매체 (예시문항 기준)
구성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의 11문항 중 40~45번에 배치, 6문항 (* 1문항은 언어의 성격을 지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과 관련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참고: 2022학년도 예시문항 40번, 42번, 43번) ② 매체 자료의 수용 과정과 관련된 설명의 적절성을 판별하는 유형 (참고: 2022학년도 예시문항 41번) ③ 매체 자료 생산 과정에서 계획의 반영 및 수정 결과의 적절성을 판별하는 유형 (참고: 2022학년도 예시문항 44번, 45번)

위의 내용은 개정 수능 국어의 달라진 점을 파악하기 위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후 시행되는 평가원 6월,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하여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2학년도 예시문항 언어와 매체 문제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 예시문항을 풀어 보자.

2022학년도 예시문항의 실제 지문과 문제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감이 오니?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출제 유형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학습해 나가면 돼. 그 전에 먼저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의 언어와 매체 예시문항을 한번 풀어 보자!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과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등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근들이 결합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산나물’, ‘바로잡다’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뽕죽구두’, ‘높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르면, 합성어는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로 나뉜다. 대등 합성어는 ‘높푸르다’처럼 두 어근의 의미가 동등한 관계를 보이는 합성어이다. 종속 합성어는 ‘산나물’처럼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의미상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이들 합성어의 의미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어근들의 의미만으로는 합성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를 따지기 힘든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는 ‘손을 내밀어 그 모양에 따라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그런데 여러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는 그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합성어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찬밥’은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종속 합성어이고,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융합 합성어이다.

이처럼 의미에 따라 합성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 간의 의미 관계, 그중에서도 상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찬밥’은 의미상 ‘밥’에 포함되므로 ‘밥’의 하의어이고, 이러한 의미 관계를 보이는 ‘찬밥’은 종속 합성어이다. 그러나 ‘찬밥’이 융합 합성어일 때에는 ‘찬밥’과 ‘밥’이 상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논밭’과 같은 대등 합성어도,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이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35. ㉠, ㉡에 해당하는 예끼리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① | 먹고살다 | 새색시 |
| ② | 뛰놀다 | 먹거리 |
| ③ | 갈라서다 | 척척박사 |
| ④ | 걸어오다 | 큰아버지 |
| ⑤ | 빛나다 | 돌다리 |

3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나는 그저께 막내딸을 보름 만에 만났다.
- ㉡ 바깥에 오래 있었더니 손발이 차가워졌다.
- ㉢ 며칠째 밤낮이 바뀐 날이 계속되고 있다.
- ㉣ 시간만 잡아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 가을이 되자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갔다.

- ① ㉠의 ‘막내딸’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딸’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 ② ㉡의 ‘손발’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발’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 ③ ㉢의 ‘밤낮’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융합 합성어이겠군.
- ④ ㉣의 ‘잡아먹는’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먹다’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 ⑤ ㉤의 ‘날아갔다’는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가다’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는 어떻게 분석할까?'

문제를 풀어 보았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예시문항의 각 지문 및 문항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봐도 좋겠지!
 그 전에 먼저 알려줄 게 있어. 2022학년도 예시문항은 전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언어(문법)'의 경우 개정 이전의 시험에서 다룬 지식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문법 개념과
 이론을 반드시 공부해 두어야 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이어 나올 PART 2 '언어 핵심 개념'에서 친절하게 정리해 줄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와 매체'의 '언어'는 기존의 문제 유형은 유지하되,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문법 지식을 묻는
 탐구형 문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커 보여. 물론 언어(문법)에서 선지의 정·오답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문법 지식이 될 거야.
 그러니 문법 개념과 이론은 반드시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보기>나 자료로 제시되는 '실제 국어생활' 사례를 탐구
 하는 연습을 하면 돼. 이를 고려하여 다음의 예시문항 분석에서는 문법 개념은 보라색으로, 정·오답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형광펜 표시를 해 두었어.

다음으로 '언어와 매체'의 '매체' 영역에서는 크게 ①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② 매체 자료의 수용 ③ 매체 자료 생산 시
 계획의 반영 및 수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따라서 매체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이어 나올 PART 2 '매체 핵심 개념'에서 친절하게 정리해 줄게! 또한 다음의 예시문항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
 지만, 매체와 관련된 개념을 안다고 해도 각 문제의 선지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게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를 꼼꼼하게 읽고 정확히 판단하는 훈련을 해 둘 필요가 있어. 이처럼 매체 문항에서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오답을 판단하는 근거이자, 자칫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에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스스로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읽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해.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예시문항을 통해 '언어와 매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았고, 판단의 핵심이 무엇
 이었는지를 살펴보자!

 [35~36] 언어(문법)

언어(문법)는 기존 수능 국어 시험에서는 11~15번에 나오던 영역이었는데,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경우 35~39번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여기에 매체 영역에서 언어(문법) 문제의 성격을 가진 한 문항이 추가될 수 있지. 하지만 예시문항을 기준으로 할 때 언어(문법)는 문항 번호만 바뀌었을 뿐 형식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기출 문제와 크게 달라진 점을 찾기가 어려워. 지문을 바탕으로 푸는 문항과 단독형 문항도 기존과 비슷한 내용과 형태로 출제되었어. 따라서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언어(문법) 지식을 충분히 학습하고,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찾아 빈틈없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될 거야. 언어(문법)는 무엇보다 개념을 정확히 알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문법 개념과 정·오답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잘 정리해 두자.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과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 (35-㉠)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35-㉡)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등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근들이 결합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산나물’, ‘바로잡다’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뽕죽구두’, ‘높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르면, 합성어는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로 나뉜다. **대등 합성어**는 ‘높푸르다’처럼 두 어근의 의미가 동등한 관계를 보이는 합성어이다. **종속 합성어**는 ‘산나물’처럼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의미상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이들 합성어의 의미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36-㉢) 한편 어근들의 의미만으로는 합성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를 따지기 힘든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는 ‘손을 내밀어 그 모양에 따라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그런데 여러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는 그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합성어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찬밥’은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종속 합성어이고,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융합 합성어이다.

이처럼 의미에 따라 합성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 간의 의미 관계, 그중에서도 **상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

는 ‘찬밥’은 의미상 ‘밥’에 포함되므로 ‘밥’의 하의어이고, 이러한 의미 관계를 보이는 ‘찬밥’은 **종속 합성어**이다. (36-㉢) 그러나 ‘찬밥’이 융합 합성어일 때에는 ‘찬밥’과 ‘밥’이 상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논밭’과 같은 대등 합성어도,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이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기출잡기**

•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따른 합성어

구분	예
㉠ 체언 + 체언	논밭, 밥냇, 눈물
㉡ 관형사 + 체언	새해, 옛날, 첫사랑
㉢ 용언의 관형사형 + 체언	어린이, 작은집, 뜰소문
㉣ 용언의 연결형 + 용언	갈아입다, 알아듣다, 들어가다, 뛰어나다, 들고나다, 파고들다
㉤ 체언 + 용언 - 우리말에서 조사 생략은 일반적이다.	철들다, 빛나다, 본받다, 힘쓰다

• **비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벗어난 합성어

구분	예
㉠ 용언의 어간 + 체언	답밥, 접칼
㉡ 용언의 어간 + 용언	검붉다, 높푸르다, 굳세다
㉢ 부사 + 체언	산들바람, 오목거울
㉣ 한자어 결합 방식 (서술어 + 부사어 / 서술어 + 목적어)	등산, 독서

35. ㉠, ㉡에 해당하는 예끼리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① | 먹고살다 | 새색시 |
| ② | 뛰놀다 | 먹거리 |
| ③ | 갈라서다 | 척척박사 |
| ④ | 걸어오다 | 큰아버지 |
| ⑤ | 빛나다 | 돌다리 |

35번은 '통사적 합성어'의 구성 방식 중 ㉠과 ㉡에 해당하는 예시를 찾는 문제야. 기존의 지문형 언어(문법)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앞에서 말했듯이, 언어와 매체로 바뀌었지만 언어는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문법 개념을 공부해 두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야! 즉, 합성어의 종류뿐만 아니라, 품사와 어미, 상하 관계와 같은 의미 관계의 개념도 알아 두어야 해.

35. ①

✔ 정답풀이

㉠은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먹고살다'는 '먹다'의 어간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용언 '살다'와 이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은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새색시'는 관형사 '새'가 뒤에 오는 명사 '색시'를 수식하는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 ② '뛰놀다'는 연결 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과 용언이 연결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거리'는 용언의 어간 '먹-'이 명사 '거리'를 수식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갈라서다'는 '가르다'의 어간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한 '갈라'가 용언 '서다'와 이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참고로 어간 '가르-'에 어미 '-아'가 결합하여 '갈라'가 되는 것은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한편 '척척박사'는 부사 '척척'이 명사 '박사'를 수식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지문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로 부사 '뽀족'이 명사 '구두'를 수식하는 '뽀족구두'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걸어오다'는 '걷다'의 어간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걸어'가 용언 '오다'와 이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참고로 어간 '걷-'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걸어'가 되는 것은 'ㄷ'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한편 '큰아버지'는 용언의 관형사형인 '큰'이 명사 '아버지'를 수식하는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빛나다'는 명사 '빛'이 조사가 생략된 채 용언과 연결된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돌다리'는 명사 '돌'이 명사 '다리'를 수식하는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I 음운, 음운 변동

• 음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예 불 vs. 물: 'ㅂ'과 'ㅁ'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므로 'ㅂ'과 'ㅁ'은 각각 하나의 음운

• 음운의 분류 { 분절 음운(음소): 자음, 모음
비분절 음운(운소): 장단, 고저, 억양

1. 자음과 모음

① 자음(19개): 소리 낼 때, 목 안 또는 입 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두 입술)	치조음 (윗잇몸-혀끝)	경구개음 (센입천장-혓바닥)	연구개음 (여린입천장-혀뒤)	후두음 (목청)
무성음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평음)	ㅂ	ㄷ		ㄱ	
		된소리(경음)	ㅃ	ㄸ		ㄲ	
		거센소리(격음)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평음)			ㅈ		
		된소리(경음)			ㅉ		
		거센소리(격음)			ㅊ		
마찰음	예사소리(평음)		ㅅ			ㅎ	
	된소리(경음)		ㅆ				
유성음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비음 :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유음 :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② 모음(21개): 소리 낼 때,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

• 단모음(10개): 소리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

혀의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이	고모음	ㅣ	ㅍ	ㅡ	ㅍ
	중모음	ㅑ	ㅓ	ㅕ	ㅗ
	저모음	ㅓ		ㅗ	

- 전설 모음 / 후설 모음 : 혀의 최고점이 입 안의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 혀의 최고점이 입 안의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 평순 모음 / 원순 모음 : 입술을 평평하게 펴서 발음하는 모음 /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

• 이중 모음(11개): 소리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

ㅜ/ㅠ계 이중 모음	ㅜ, ㅠ, ㅠ, ㅠ, ㅝ, ㅞ
ㅛ/ㅠ계 이중 모음	ㅛ, ㅜ, ㅠ, ㅞ
'ㄱ'의 경우에는 앞의 'ㅡ'가 반모음인지, 뒤의 'ㅣ'가 반모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음	ㄱ

I 매체의 본질

1. 매체의 유형과 특성

① 매체의 개념: 발신자와 수신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혹은 경로

② 매체의 유형과 특성

유형	특성	
인쇄 매체	·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함 ☞ 책, 신문 등 · 인쇄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대량 생산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함 ·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필자와 독자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	
음성 매체	· 전자 기술의 발달로 등장하였으며 소리(음향), 음성을 대량으로 전송하며,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지만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 ☞ 라디오	
영상 매체	· 전자 기술의 발달로 등장하였으며 소리(음향), 음성과 문자, 이미지 등을 함께 전송할 수 있어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함 · 영상 매체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식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지님 ☞ 텔레비전, 영화	
뉴 미디어 (정보 통신 매체)	개념	·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인터넷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 ☞ 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SNS(누리 소통망) 등
	특성	·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름: 의사소통의 범위와 파급력이 넓어지고 강해짐 · 정보의 생산과 수용의 간편화: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로 참여 가능 · 시·공간적 제약이 적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정보를 생산 및 수용 · 정보 생산과 수용의 쌍방향성: 다수가 상호 연결 되어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으로 의사소통 가능 · 복합 양식성: 소리(음향), 음성, 이미지(그림, 사진 등), 문자,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의미 생성
	영향	·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교환이 폭발적으로 증가 · 전 세계인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 관심사를 공유하고 친밀감·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음

③ 매체 언어의 개념: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생각, 느낌 등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언어

☞ 소리(음향), 음성, 이미지(그림, 사진 등), 문자, 동영상 등

2. 뉴 미디어를 통한 언어 생활의 특성

① 새로운 소통 문화 형성: 뉴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집단 지성*의 발휘가 가능해짐

* 집단 지성: 다수의 컴퓨터 이용자 간의 상호 협동적인 참여와 소통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나 판단과 지식의 축적물 혹은 그 과정을 말함

② 문제점

-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표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거나 인간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함
- 신빙성 없는 정보의 유통과 개인 정보,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③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

- 다양한 매체가 지닌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함: 인터넷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에 허위나 과장이 섞이지 않았는지,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는지 신뢰성을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3 STEP 훈련

수능 국어에서는 지문에서 써 준 만큼만 묻습니다. 따라서 선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신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 '지문에서 눈으로 확인한 것'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문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지문과 선지를 연결하여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곧 기출 분석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를 N회차 반복함으로써 단순히 정답의 근거를 찾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을 넘어서 평가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문과 선지를 연결 짓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구성하는지, 지문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를 꿰뚫어볼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안내된 STEP 1~STEP 3의 단계를 거치며 선지를 판단할 때의 이상적인 사고 과정을 익혀보세요.

STEP 1 시간 제한 풀기

1. 오늘 분석하고자 하는 『홀수 국어 기출 훈련도구』를 편 후, 기출 분석 노트에서 '문제 페이지'와 '출제 시험명', '지문 제목'을 확인하고 해당 지문의 '분석 날짜'를 적습니다.
2. 주어진 '목표 시간'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선택한 답'에 자신이 고른 답을 체크합니다. 이때 찍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목표 시간' 내에 풀고, '시간 안에 풀었으나 확신 없이 푼 문제'와 '시간 부족으로 못 푼 문제'는 따로 표시해 둡니다.
3. STEP 1에서 문제를 푸는 데 걸린 '소요 시간'을 적습니다. ※ 이때 절대! 채점을 하거나 해설을 보지 않습니다.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

1.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문제를 풀며 정답을 고릅니다.
2. '선지 분석'에 자신이 찾은 근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분석 내용을 적습니다. 도저히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은 따로 표시해 둡니다. ※ 이때에도 절대! 채점을 하거나 해설을 보지 않습니다.

STEP 3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1. STEP 1과 STEP 2에서 '내가 선택한 답'과 '정답'을 비교하여 '정답 여부'를 표시합니다.
2. 정답과 해설을 참고하여 STEP 1과 STEP 2에서 확인한 자신의 문제점을 '진단 결과'에 적고, 이에 따라 앞으로 학습해야 하거나 기억해야 할 것들을 '보완할 점'에 적습니다.

STEP 1 정답 여부	STEP 2 정답 여부	진단 결과
X	X	필수 개념이나 지문에 대한 '이해 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풀었을 것입니다.
X	O	'시간'에 쫓겨 비논리적인 사고가 나타난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하며 긴장된 상황에서도 차근차근 푸는 훈련을 해 나가세요.
O	X	시간 제한을 두고 풀었을 때 맞았으나 오히려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풀었을 때 틀린 경우, 자신의 '사고 과정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에 비약이 없었는지, 이상한 근거를 끌어오는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N회독**

N회독을 할 때는 3 STEP 훈련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거나 학습 상황에 따라 훈련 단계를 조절하여 공부합니다.

1~2회독(1학기)	① 문제 풀이를 위한 핵심 개념 학습 ② 모든 선지의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 ③ STEP 1~STEP 3의 과정 빠짐없이 시행
3회독 이상(2학기)	① 이해가 부족한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학습 ② 선지는 정답 중심으로 근거 확인 ③ STEP 2~STEP 3 중심으로 시행
수능 D-30	① 최근 3년간 수능 기출 지문 반복 ② N회독을 하며 '보완할 점'에 정리해두었던 내용 재확인

지금부터 홀수 국어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하여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언어(문법) 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지문을 읽고 STEP 1 '시간 제한 풀기'를 한 후, 다시 지문을 활용해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를 해 보세요. 이후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고 STEP 3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에서 자신의 문제점과 보완할 사항을 파악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2021학년도 수능 언어(문법) 문제에 대해서는 '기출 분석 노트 예시'가 제공되니, 이를 자신이 작성한 것과 비교하며 홀수 국어 기출 분석 노트의 구체적인 활용법을 익혀보세요.

★ PART 4부터는 스스로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해 분석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 홀수 기출 분석 노트는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는 ‘원어기(遠語機)’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telephone’에 해당하는 단어로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전화기(電話機)’가 ‘전기를 통해 말을 보내는 기계’의 뜻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원어기’는 말을 ‘멀리’ 보낸다는 점에, ‘전화기’는 말을 ‘전기로’ 보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다. 이처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개화기 사전에 등장하는 ‘소젓메주(소젓메주)’처럼 새롭게 유입된 대상을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소젓메주’는 ‘치즈(cheese)’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간장과 된장의 재료인 ‘메주’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가례언해』(1632)에 따르면 ‘총각(總角)’은 ‘머리를 땡아 갈라서 틀어 땡’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뜻한다.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던 단어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땡아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대찌개’ 역시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찌개를 끓였던 것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다.

우리는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가 구성되는 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한불자전』(1880)에는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길보기’와 ‘산돌이’가 등장한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풀이된 ‘두길보기’의 ‘두길’은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장소를 일 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로 풀이된 ‘산돌이’는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1. ㉠과 ㉡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새해맞이,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① 새해맞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②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③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 ④ 새해맞이, 한몫하다
- ⑤ 새해맞이

2.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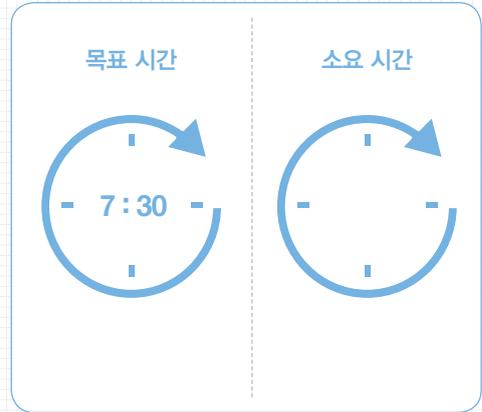
- ‘립스틱’을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던 염료인 ‘연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술연지’라고도 했다.
- ‘변사’는 무성 영화를 상영할 때 장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설명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 ‘수세미’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을 뜻하는데, 그 열매 속 섬유로 그릇을 닦았다. 오늘날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
- ‘혁대’의 순화어로 ‘가족으로 만든 띠’라는 뜻의 ‘가족띠’와 ‘허리에 매는 띠’라는 뜻의 ‘허리띠’가 제시되어 있다.
- ‘양반’은 조선시대 사대부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점잖은 사람’의 뜻으로 주로 쓰인다.

- ① ‘입술연지’는 ‘소젓메주’처럼 일상의 단어로 새로운 대상을 인식한 예로 볼 수 있겠군.
- ② ‘변사’는 무성 영화와 관련해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상이 반영된 예에 해당하겠군.
- ③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총각’과 유사하겠군.
- ④ ‘가족띠’는 ‘재료’에,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에 초점을 둔 단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양반’은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겠군.

분석 날짜	년 월 일	문제 페이지	P.68	출제 시험명	2021학년도 수능
문항	언어 1~5번				

STEP 1 시간 제한 풀기

문제	내가 선택한 답	시간 안에 풀었으나 확신 없이 푼 문제	시간 부족으로 못 푼 문제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

문제	선지	선지 분석	근거 못 찾은 것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2-②, ⑤)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는 ‘원어기(遠語機)’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telephone’에 해당하는 단어로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전화기(電話機)’가 ‘전기를 통해 말을 보내는 기계’의 뜻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원어기’는 말을 ‘멀리’ 보낸다는 점에, ‘전화기’는 말을 ‘전기로’ 보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다. 이처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지기도 한다.(2-④) 또한 개화기 사전에 등장하는 ‘소젓메쥬(소젓메주)’처럼 새롭게 유입된 대상을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2-①) ‘소젓메쥬’는 ‘치즈(cheese)’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간장과 된장의 재료인 ‘메주’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가례언해』(1632)에 따르면 ‘총각(總角)’은 ‘머리를 땅아 갈라서 틀어 땀’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남자’를 뜻한다.(2-③)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던 단어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땅아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대찌개’ 역시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찌개를 끓였던 것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다.(2-②, ⑤)

우리는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가 구성되는 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한불자전』(1880)에는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길보기’와 ‘산돌이’가 등장한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풀이된 ‘두길보기’의 ‘두길’은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1-④)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장소를 일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로 풀이된 ‘산돌이’는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1-④)로 이루어져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 단어 | 정답률 83

1. ㉠과 ㉡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새해맞이,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뫼하다
 ㉠, ㉡ ㉠ ㉡ ㉠, ㉡

㉠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
 : 새해(새(관형사) + 해(명사)), 두말(두(관형사) + 말(명사)), 한뫼(한(관형사) + 뫼(명사))

㉡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 새해맞이(새해(목적어) 맞이하다(서술어)), 숨은그림찾기(숨은 그림(목적어) 찾다(서술어)), 한뫼하다(한뫼(목적어) 하다(서술어))

▽ 정답풀이

④ 새해맞이, 한뫼하다

윗글에서는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의 예시로 ‘두길보기’의 ‘두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어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두길’과 같이 ‘관형사 + 명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을 충족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보기>에서는 ‘새해맞이’의 ‘새해’와 ‘두말없이’의 ‘두말’, ‘한뫼하다’의 ‘한뫼’이 ‘관형사 + 명사’의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을 충족한다. 한편 윗글에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의 예시로는 ‘산돌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보기>의 ‘새해맞이’는 ‘새해(목적어) 맞이하다(서술어)’, ‘숨은그림찾기’는 ‘[숨은(관형어) 그림]을(목적어) 찾다(서술어)’, ‘한뫼하다’는 ‘한뫼(목적어) 하다(서술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을 충족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 ㉡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는 ‘새해맞이’와 ‘한뫼하다’이다.

✕ 오답풀이

두말없이

‘두말없이’에서 ‘두말’은 ‘관형사 + 명사’의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을 충족하지만, ‘두말없이’는 ‘두말(주어) 없다(서술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라고 볼 수 없어 ㉡을 충족하지 못한다.

숨은그림찾기

‘숨은그림찾기’는 ‘[숨은(관형어) 그림]을(목적어) 찾다(서술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을 충족하는 단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숨은그림찾기’의 ‘숨은그림’에서 후행하는 명사 ‘그림’을 수식하는 ‘숨은’은 관형사가 아니라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을 충족하지 못한다.

STEP 3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 정답 확인

문제	정답	STEP 1		STEP 2	
		내가 선택한 답	정답 여부	내가 선택한 답	정답 여부
1		① ② ③ ④ ⑤	○ △ ×	① ② ③ ④ ⑤	○ △ ×
2		① ② ③ ④ ⑤	○ △ ×	① ② ③ ④ ⑤	○ △ ×
3		① ② ③ ④ ⑤	○ △ ×	① ② ③ ④ ⑤	○ △ ×
4		① ② ③ ④ ⑤	○ △ ×	① ② ③ ④ ⑤	○ △ ×
5		① ② ③ ④ ⑤	○ △ ×	① ② ③ ④ ⑤	○ △ ×

○ : 근거도 명확히 찾고, 정답도 맞힘 △ :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정답은 맞힘 × :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정답도 틀림

● 문제점 진단 및 보완

문제	진단 결과	보완할 점
1		
2		
3		
4		
5		



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o’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 말의 반모음은 ‘j’도 있으니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 네, ㉠ 로 발음되는 예를 들 수 있어요.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여]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
- ③ 어간 ‘잡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 [잡가]
- ④ 어간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더서]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워라]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전의 뜻풀이 대상이 되는 표제 항목을 ‘표제어’라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에는 붙임표 ‘-’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붙임표는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 띄어쓰기, 어원 및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언제나 다른 말과 결합해야 하는 표제어에는 다른 말과 결합하는 부분에 붙임표가 쓰인다. 접사 ‘-질’과 연결 어미 ‘-으니’가 이러한 예이다. 다만 조사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단어이므로 그 앞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용언 어간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어미 ‘-다’와 결합한 기본형이 표제어가 되고, 용언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둘째,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에는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 성분들 사이에 붙임표가 한 번만 쓰인다. ‘이등분선’은 ‘이’, ‘등분’, ‘선’의 세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이 복합어의 표제어 ‘이등분-선’에서 붙임표는 ‘이등분’과 ‘선’이 가장 나중에 결합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복합어의 붙임표는 구성 성분들을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는 점도 알려 준다.

한편 ‘무덤’, ‘노름’, ‘이따가’처럼 기원적으로 두 구성 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나 ㉠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소리대로 적는 단어들은 구성 성분들이 원래 형태의 음절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무덤’의 접미사 ‘-엄’은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어근 ‘묻-’과 접미사 ‘-엄’이 결합한 ‘무덤’은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엄’과 비슷한 접미사에는 ‘-암’, ‘-억’, ‘-우’ 등이 있다.

‘노름’은 어근 ‘놀-’의 본뜻만으로는 그 의미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이따가’도 어간 ‘있-’의 본뜻과 멀어졌다. 따라서 ‘노름’과 ‘이따가’는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1~3] (가)는 '한글 맞춤법'을 주제로 만든 조별 발표 블로그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발표 블로그를 수정하기 위해 조원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의 한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국어 시간에 '한글 맞춤법'을 주제로 조별 영상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 조는 '헛갈리는 맞춤법'을 하위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공개 블로그에서는 우리 조가 어떻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스토리보드 형태로 소개하고, 완성된 영상물을 실어 볼 거예요. 블로그를 잘 보신 다음, 누구든지 댓글로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①저희 조는 여러분의 댓글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영상을 완성할 생각이예요. 감사합니다.

(1) 영상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

장면	화면 설명	추가 장치
1	학생이 책상에 앉으며 맞춤법이 어렵다고 말하는 장면. 이때 헛갈리는 맞춤법 예시 한 가지는 반드시 제시	(자막) 맞춤법 너무 어렵다. '설겅이? 설거지?'
2	헛갈리는 맞춤법 예시 화면(이미지) - 귀양살이/귀향살이, 설겅이/설거지, 어의없다/어이없다, 몇일/며칠, 환골탈태/환골탈퇴	(자막) 헛갈리는 단어 쌍 중에 무엇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3	②헛갈리는 맞춤법 예시 단어의 정답 제시 화면(이미지) - 귀양살이, 설겅이, 어의없다, 몇일, 환골탈태	(자막) 어려운 맞춤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4	학생이 다시 걸어 나와서 정면을 응시한 채 권유하듯 두 팔을 앞으로 뻗는 모습	(자막) 우리 다 같이 맞춤법에 맞는 국어 생활을 해 나가요.

(2) 제작한 영상을 완성본

③(3) 영상물 제작을 위해 참고한 TV 교양 프로그램 영상

- E방송사 우리말 사랑, 2020년 7월 0일 방영분 [링크]
- K방송사 우리말을 찾아서, 2020년 7월 0일 방영분 [링크]

*블로그 작성자: 권△△

댓글(7) 펼쳐보기 ▼

댓글	등록
김○○ @주제는 좋은데, 맞춤법이 헛갈리는 단어가 기준 없이 나열되어 있는 거 같아. 14:21	
↳ 정△△ 나도 동의이야. 뭔가 좀 체계적이지 않은 듯. 14:21	
↳ 김○○ 영상이 단조롭기도 해. 좀 짧기도 하고. 15:20	
박◇◇ 맞춤법이 헛갈리는 단어들만 대화에서 나오면 어떨까? 15:05	
↳ 정△△ @일상의 실제 대화 상황이 제시되면 재밌을 듯. 15:05	
↳ 박◇◇ ㅇㅇ 15:30	
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흥미로운 내용 잘 보았습니다. ^^ 16:20	

(나)

오후 04:06 84%

우리 조 대화방 (3명)

어제까지 블로그에 올랐던 댓글 확인했지? 가영

나진 응, 확인했어.

댓글에서 언급된 내용 포함해서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가영
내가 종합해서 몇 가지로 추려 봤어.

나진 오, 고생했네. 하나씩 의견 듣고 수정 방향 논의하자.

다희 오키오키.

일단, 헛갈리는 맞춤법의 예시에 대한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 가영

나진 나도 그 부분 수정이 시급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범주를 설정하지?

다희 우리가 참고했던 자료 말고, 내가 다시 찾아본 자료인데, 여기 보면 맞춤법이 헛갈리는 단어를 용례별로 범주화하고 있어. 자료 보내볼게.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용례.pdf 파일전송 (100%)

오, 여기에 '비슷한 소리로 잘못 쓴 경우, 발음과 표기를 일치 시키지 않아 틀린 경우, 발음과 표기를 일치시켜 틀린 경우, 사자성어를 잘못 쓴 경우'로 나타나 있네.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장면을 수정하면 어떨까?

다희 좋아 좋아.

다음으로, 세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정답을 잘못 말한 단어를 하나 찾았어. 가영

나진 어 그렇네, 내 눈에도 하나가 보이긴 하네. 근데 진짜 헛갈리긴 하다. ㅎㅎㅎ

다희 혹시 모르니 이 부분을 내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게. 역시 우리 말은 어려워. ㅠ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 맞춤법이 헛갈리는 단어가 나오면 좋겠다는 댓글이 있긴 한데, 어때? 가영

나진 나는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상황극으로 꾸며야 하잖아.

응, 나도 이걸 반영하지 않는 게 좋겠어. 가영

다희 그런데 대화 상황이 나오면 영상의 단조로움이 극복될 것 같긴 해. 우리가 꼭 나오지 않더라도 맞춤법이 헛갈리는 단어가 나오는 대화의 영상이 있지 않을까?

아, 우리가 참고했던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아. 링크 공유할 테니 지금 같이 확인해 보자. 가영
vod.k○○.com/우리말을 찾아서_2020년_7월_0일_방송분

나진 나 발견 발견! 3분 40초 즈음 나와.

좋아, 그 장면 편집해서 쓰도록 하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내가 @수정된 스토리보드를 다시 만들어서 금요일까지 이곳 대화방에 공유할게. 가영

다희 알겠어.

1. (가)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블로그 방문자라면 누구든지 영상 매체의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비교할 수 있다.
- ② (나)는 영상 매체의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대화 참여자들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가)는 영상 매체 제작을 위한 논의 참여가 가능한 시간에 제한이 있는 반면 (나)는 실시간으로 논의 참여가 가능하다.
- ④ (가)는 볼특정한 인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반면 (나)는 영상 매체를 제작하는 특정 인물들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영상 매체의 제작 과정에서 활용되는 관련 자료를 하이퍼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에 대해 (나)의 조원들이 논의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관련된 댓글 의견들에서 도출된 세 가지의 수정 방향을 제기하였다.
- ② ㉡에서 제시된 단어 가운데 정답이 잘못 제시된 것의 개수를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 ③ ㉡에서 링크된 영상 이외의 새로운 영상을 찾아서 영상물의 장면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④ ㉡에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헛갈리는 맞춤법의 범주를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 ⑤ ㉡과 관련하여 직접 대화 상황을 구현하지 않고 기존에 존재 하던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3. <보기>는 ㉡의 초안이다. 이를 참고할 때 '가영'이 세운 수정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면	화면 설명	추가 장치
1	학생이 책상에 앉으며 맞춤법이 어렵다고 말하는 장면. 이때 헛갈리는 맞춤법 예시 한 가지는 반드시 제시	(자막) 맞춤법 너무 어렵다. '환골탈태? 환골탈퇴?'
2	드라마 속 일상 대화 장면. 대화 장면은 '사자성어를 잘못 쓴 경우'에 관한 것으로 제시	(자막) '비슷한 소리로 잘못 쓴 경우, 발음과 표기를 일치시키지 않아 틀린 경우, 발음과 표기를 일치시켜 틀린 경우, 사자성어를 잘못 쓴 경우'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3	헛갈리는 맞춤법 예시 화면(이미지) - (1) 비슷한 소리로 잘못 쓴 경우: 귀양살이 / 귀향살이, 어이없다 / 어이없다 (2) 발음과 표기를 일치시키지 않아 틀린 경우: 설겅이 / 설거지, 몇칠 / 며칠 (3) 발음과 표기를 일치시켜 틀린 경우: 더우기 / 더욱이 (4) 사자성어를 잘못 쓴 경우: 환골탈태 / 환골탈퇴	(음성) 헛갈리는 단어 쌍 중에 무엇이 맞는지 한번 찾아 보세요.
4	헛갈리는 맞춤법 예시의 정답 화면(이미지) - (1) 귀양살이, 어이없다 (2) 설거지, 며칠 (3) 더욱이 (4) 환골탈태	(음성) 특히 '비슷한 소리로 잘못 쓴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5	학생이 다시 걸어 나와서 정면을 응시한 채 권유하듯 두 팔을 앞으로 뻗는 장면	(자막) 평소엔 헛갈리는 맞춤법을 찾고 고쳐가는 습관을 가져 봐요.

- ① 조원들과의 대화를 반영해 '장면 2'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장면 1'의 헛갈리는 맞춤법 예시는 '장면 2'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정해야겠어.
- ② 조원들과의 대화를 반영해 '장면 3'에서는 범주에 따라 맞춤법이 헛갈리는 단어를 제시해야겠어.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수밖에 없겠어.
- ③ 조원들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장면 4'에서는 정답을 제시하면서 비슷한 소리로 잘못 쓴 경우에 대한 유의점을 음성으로 넣어야겠어.
- ④ 조원들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장면 5'에서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되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일상에서의 습관을 강조하면 좋겠어.
- ⑤ 조원들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영상물에서 자막과 음성을 균형 있게 넣어야겠어. 동적인 화면에서는 음성을 넣고 정적인 화면에서는 자막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파생어는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자.

- (1) 만형, 맨손, ㉠덧나다
- (2) 장난꾸러기, 욱심쟁이, ㉡이발사
- (3) 먹이, ㉢웃음, ㉣즐거움
- (4) 살리다, ㉤잡히다

(1)~(4)는 모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1)의 ‘만형’은 어근 ‘형’의 앞에 ‘만-’의 뜻을 더하는 접사 ‘만-’이 결합한 것이고, ‘맨손’과 ‘덧나다’도 이와 같은 구성이다. (2)는 (1)과 달리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파생어이다. ‘장난꾸러기’는 어근 ‘장난’의 뒤에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꾸러기’가 결합한 것이고, ‘욕심쟁이’와 ‘이발사’도 이와 같은 구성이다. (3)과 (4)의 파생어는 어근이 동사 또는 형용사인 용언이다. 먼저 (3)에 사용된 접사들은 (1)과 (2)에 사용된 접사들과 달리 파생어를 형성하면서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먹이’는 ‘먹다’라는 동사의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이고, ‘웃음’과 ‘즐거움’도 파생어가 되면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졌다.

(4)의 ‘살리다’는 어근에 사동 접사 ‘-리-’가 결합한 파생어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모두 동사로 동일하지만, 주동사 ‘살다’가 쓰인 문장의 구조와 사동사 ‘살리다’가 쓰인 문장의 구조는 서로 다르다. 한편 ‘잡히다’는 동일한 형태로 [A] ‘잡다’의 피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잡다’의 사동사로 쓰이기도 한다. 피동사 ‘잡히다’가 쓰인 피동문은 ‘잡다’가 쓰인 능동문과 대응되고, 사동사 ‘잡히다’가 쓰인 사동문은 ‘잡다’가 쓰인 주동문과 대응된다. 또한 피동사 ‘잡히다’가 쓰인 문장과 사동사 ‘잡히다’가 쓰인 문장의 구조 역시 서로 차이가 난다.

1.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접사가 어근에 결합한 위치가 서로 다르다.
 - ② ㉠과 ㉢은 접사의 결합이 품사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과 달리, ㉢은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품사가 바뀌었다.
 - ④ ㉢과 ㉣은 동사인 어근 뒤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로 문장에서 용언으로 쓰일 수 있다.
 - ⑤ ㉢과 달리, ㉣은 어근에 결합한 접사가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_____ <보기> _____

- ㉠ 물에 빠진 고양이 살았다.
- ㉡ 개가 물에 빠진 고양이 살렸다.
- ㉢ 삼촌은 드디어 물고기 잡았다.
- ㉣ 물고기가 드디어 삼촌 잡혔다.
- ㉤ 아이가 숙제를 하려고 연필 잡았다.
- ㉥ 엄마가 아이에게 연필 잡혔다.

- ① ㉠의 주어가 ㉡에서 목적어로 바뀐 것은 사동 접사 ‘-리-’가 결합한 파생어의 영향이겠군.
- ② ㉢의 주어와 목적어가 ㉣에서 각각 부사어와 주어로 바뀐 것은 피동 접사 ‘-히-’가 결합한 파생어의 영향이겠군.
- ③ ㉣의 ‘잡혔다’와 ㉤의 ‘잡혔다’에 쓰인 ‘-히-’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접사에 해당하겠군.
- ④ ㉤의 ‘잡았다’는 주어의 의지로 동작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의 ‘잡혔다’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됨을 나타내는군.
- ⑤ ㉠은 사동문에 대응되는 주동문에, ㉢은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에 해당하겠군.

3.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 <보기> _____

선생님: 음운 변동의 결과는 음운의 개수에 변화를 주기도 해요. <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를 탐구하여 발표해 볼까요?

[자료 1] 음운 변동의 유형과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 변화

유형	설명	음운 개수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0
㉡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1
㉢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1
㉣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1

[자료 2]

- 물은 99도에서 끓지[끓치] 않는다.
- 나는 급히 구급약[구급약] 상자를 꺼냈다.
- 하나도 빠짐없이 날날이[난나치] 조사해라.
- 그 사람은 불여우[불려우]라는 별명이 있다.
- 눈으로 방바닥을 훑다[훑따] 바늘을 발견했다.

학 생: _____ [가] _____

- ① ‘끓지[끓치]’에는 ㉠과 ㉡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어요.
- ② ‘구급약[구급약]’에는 ㉢과 ㉣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어요.
- ③ ‘날날이[난나치]’에는 ㉠과 ㉡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어요.
- ④ ‘불여우[불려우]’에는 ㉣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어요.
- ⑤ ‘훑다[훑따]’에는 ㉢과 ㉣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어요.

정답과 해설



문제 P.162

1. ⑤

㉔(부테 숲 여르삼과 分身 브르사맨)에서 두 개의 명사절 '부테 숲 여르삼'과 '分身 브르사맨'은 접속 조사 '과'로 이어져 있다. 접속 조사 '과' 뒤에 나오는 명사절 속에서는 주어와 생략되어 있으나, 현대어 풀이를 통해 두 개의 명사절의 주어는 모두 '부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주어와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㉑(그녀는 그가 열심히 달렸음을 알고 있다.)에서는 '그가 열심히 달렸음'이라는 명사절이 쓰였는데, 이때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사용되었으며,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② ㉒(도훈 여름 여름)에서 '여름'은 동사 '열-'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 ③ 뒷글에서 '중세 국어의 명사형 전성 어미는 '-음/-움'이 있었는데,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음'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움'이 쓰였다.'라고 하였다. ㉑의 '여름'에서 어간 '열-'의 모음은 음성 모음이므로, 모음 조화에 따라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하였고, 이 명사절에 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연결되었다.
- ④ 뒷글에서 '명사형 전성 어미 '-음/-움'은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으/으)샤-'와 결합된 '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했다. 따라서 ㉒에서 '여름'과 '브르사맨'의 '삼'에서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으/으)샤-'를 분석할 수 있다.

2. ②

뒷글에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명사형 어미처럼 쓰이는 경우'를 ㉔(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용법을 지닌 관형사형 어미에는 '-르'와 여기에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한 '-르'도 존재'한다고 했다. '너퍼 돕소미 다옴 업서'에서 '다옴'은 '다옴- + -르'로 분석되며 대응하는 현대어 풀이는 '다함'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관형사형 어미 '-르'에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한 '-르'이 체언을 수식하지 않은 채 명사형 어미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㉔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德(덕)이여 福(복)이라 호닐 나으라 오소이다.'에서 '호닐'은 '호- + -오- + -르 + 울'로 분석되며 대응하는 현대어 풀이는 '하는 것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관형사형 어미 '-르'이 체언을 수식하지 않은 채, 마치 명사형 어미처럼 바로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㉔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사르미 어두미 어러우니'에서 '어두미'는 '얼- + -움 + 이'로 분석할 수 있고, 명사형 전성 어미 '-움'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래 사름들의게나 주실 양으로 ㅎ압쇼샤'에서 '주실'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르'이 쓰여 뒤에 오는 체언 '양'을 꾸미고 있으므로,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 ③ '이 곁흔 어린 사르미 구즌 길헤 떠디어'에서 '구즌'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르'이 쓰였지만 뒤에 오는 체언 '길'을 꾸며주므로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한편 '帝網(제망) 구스리 重

重(중중)ㅎ야'에서 '구스리'는 체언 '구슬' 뒤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연결된 것이므로,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 ④ '織女(직녀)는 뵈 ㅼ는 거지비라 혼 마리니'에서 '혼'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르'이 쓰였지만 뒤에 오는 체언 '말'을 꾸며주므로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또한 '비홀 싸르미 반드기 기픈 ㅼ들 불겨'에서 '비홀'은 관형사형 어미 '-르'이 쓰였지만 뒤에 오는 '사람'을 꾸며주므로, 이 역시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頰(번뇌)애 더럽디 아니호미 일후미 ㅼ提(보리)오'에서 '아니호미'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쓰였고, '몽경이 보기를 길히 사름 7티 호디'에서 '보기'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쓰였다. 두 예시 모두 관형사형 어미는 쓰이지 않았다.

3. ③

ㄷ(바로 이 연필이 글씨가 잘 써진다.)에서 안은문장에 쓰인 부사어는 '바로'인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 연필'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바로'가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ㄱ(저 숲은 나무가 많다.)에서 안은문장의 주어는 '숲은'이고, 서술절의 주어는 '나무가'이므로, 의미적으로 '전체-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 ② ㄴ(이 지역이 벼농사가 잘된다.)에서 안은문장의 주격 조사 '이'를 부사격 조사 '에서'로 바꾸면 '이 지역에서 벼농사가 잘된다.'가 되므로, 주어와 서술어는 한 번만 나타나 겹문장이 아닌 홀문장이 된다.
- ④ ㄹ(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수염이 있으시다.)에서 서술절의 주어인 '수염'은 안은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서술절에 쓰인 선어말 어미 '-샤'는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와 관련된 '수염'을 높임으로써 안은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기능을 한다.
- ⑤ ㅁ(전교에서 우리 반이 국어가 평균이 가장 높다.)을 주어와 서술어로 분석하면 크게 '{우리 반이(주어1) + [국어가 평균이 가장 높다.](서술어1)}'로 분석되는데, 이때 '서술어1'은 서술절에 해당하며, 이를 다시 {국어가(주어2) + [평균이 가장 높다.](서술어2)}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서술어2' 역시 서술절에 해당하며, 이 부분을 다시 '평균이(주어3) 가장 높다.(서술어3)'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ㅁ은 서술절이 두 번 쓰였으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총 세 번 나타난다.